

상대가 원하는 나로 보이기

- 이력서는 내가 누구다를 쓰는게 아니고, "당신이 원하는 나예요"를 표현
- 구인란의 가고자 하는 회사의 자격조건(우대사항)을 정리하여 당신이 원하는 나를 파악하여 이력서 작성
- 당신이 원하는 인재상은 채용공고의 자격요건과 우대사항
 - ✓ 대부분 좋은 개발자(인성이나 협업능력은 차후)를 원함(기술면접->인성면접)
 1. 단순 기능 나열(대부분의 이력서,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여기서 그침)
 2. 왜 이 기술을 사용했는지나 이 기술의 장단점. 내부 작동원리
 3. 유지보수(재사용이나 기능 수정) 용이한 코드=캡슐화, 테스트코드가 있는지, 리팩토링 단계가 있는지
 4. 성능 개선(성능 트러블 슈팅 및 개선, 대용량 트래픽 처리 역량)
- 다다익선을 피하자(특히 자소서에는 IT 직무관련. 자소서의 비중은 미약할 수 있다). 다다익선의 나열은 내가 부각시키려는 부분을 희석시킬 수 있음
- 내가 가고자 하는 10개 정도의 회사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을 리스트 업하고, 자주 등장하는 내용의 스펙을 위주로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
-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님

A 지원자

- Python
- EDA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
- Oracle
- MySQL
- HTML/CSS
- JavaScript
- DeepLearning
- Machine Learning
- 정보처리기사
-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
- SQLD...

B 지원자

- Flask micro Framework로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AI 서비스 개발
- 회원들의 운동의 자세 및 체형을 분석하여, 자세를 교정하고 체형에 따른 식단을 추천하는 서비스

(문제점)운동자세 교정에서 CNN과 Machine Learning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반응속도가 1000ms으로 성능 저하 발견

(해결과정)

Validation_curve와 GridSearchCV를 이용한 하이퍼파라미터를 탐색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구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생성을 통해 인덱스 스캔으로 성능 개선

(성과)

1000ms에서 50ms으로 20배 성능 향상

추상화와 30초

- 기능을 추상적으로 적기 보다는 숫자로 명시하거나, 기능의 도입배경, 사용이유, 성과를 명시
 - 도입배경 : 그 기술을 왜 사용했는지(또는 문제점)
 - 사용이유 : 기술의 특징 / 장단점 (기술의 작동원리)
 - 성과 : 문제점 개선 후 성능 개선(해결책)
- 한 이력서당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볼 수 없음(보통 30초~1분 이내)

이력서 및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내용은 프로젝트 부분!

유능한 개발자인지 여기서 판단할 수 있어야.

그래서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뒤로! (ex. 성적등)

최대한 다양한 채용 플랫폼 활용하기

- 원티드, 랠릿, 프로그래머스, 점핏 600~700만개 중 2만6천개사
(채용 중계 수수료 계약연봉의 7%)
- 그룹바이, 로켓펀치, 비긴메이트, 링커리어, 런프리, 서핏, 더팀스,
인크루트, 잡코리아, 워크넷
- 그외 회사 사이트, SNS, 오픈톡방

1.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방문
2. 네이버 검색하면 회사 정보 검색(평균 연봉 및 잡플래닛 회사 후기등. 잡플래닛 후기는 연계학교에서 볼 수 있음)
3. <https://www.nicebizinfo.com/cm/CM0100M001GE.nice>에서 해당 기업정보를 확인하여 퇴사자가 다른회사와 비교하여 심하게 많지 않은지 복리 등을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있음. 거래처, 매출액 등 확인 가능

추가 Q&A

- 신입인데 경력사원 채용공고에 지원 가능한지?
- 수료 후 (취업 후) 어떤 걸 공부해야 할지?